

성경과 고대 제국 <전편 마지막회> (9/8/2012)

B.C 고대 제국은 로마제국 이전의 헬라 제국까지만 다루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로마인의 이야기> <십자군 전쟁> <예루살렘 성전> 등의 베스트셀러를 통하여 로마제국부터 이슬람제국, 기독교 제국에 대해서 정리해보려 한다. <성경과 고대제국> 칼럼을 중단하는 이유는 로마제국 시대는 예수님 전후 시대와 겹쳐서 예민한 부분도 있고,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대의 역사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나의 오지랴를 꾸짖는 아내의 잔소리 때문이기도 하다. 재미가 없었나? ...

<B.C. 4 세기> 헬라의 두로 공성전 : 페르시아의 속국이자 페르시아 함대의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페니키아의 도시국가들은 페르시아가 이수스 전투에서 패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알렉산더에게 항복을 하지만 두로 (티루스)는 알렉산더의 사절단을 죽여 시신을 바다에 던져 버린다. 두로성은 육지에서 0.5 마일 떨어져 있고, 성벽의 둘레가 0.8km 에서 1.2km 에 달하고, 높이가 45m 에 달하기 때문에 두로는 버티어내리라 믿었다. 하지만 알렉산더의 7 개월간의 공격끝에 두로성은 함락되고, 이에 대한 보복으로 8 천명의 두로 백성들을 살해하고 3 만명을 노예로 팔아버린다. 이로써 다윗 때부터 우호 관계였던 이세벨의 두로와 시돈의 페니키아는 알렉산더에 의해 멸망한다.

<알렉산더 사망> : 인도 갠지스강까지 점령한 알렉산더는 군인들의 종군 거부로 32 세 나이에 죽고 그 넓은 대륙은 7 명의 장수들에 의해 분할 통치되다가, 3 명은 도태되고, 4 명에 의해 통치된다. 이중 셀루쿠스가 유대를 통치하는데, 그는 헬라문화를 유대에 강요하자, 유대 안에 반 헬라 감정이 싹튼다. 이 시기에 로마는 카르타고와 포에니 전쟁을 치루고 있다. 3 차에 걸쳐 120 년간 계속된 포에니 전쟁은 신흥국가 로마에 승산이 없는 싸움이었다. 이에 반해 카르타고는 페니키아가 세운 강력한 해상국가로 시칠리아 섬 서쪽을 400 년간 이상 다스리고 있었다. 그런데 23 년간의 1 차 포에니 전쟁과 16 년간의 2 차 포에니 전쟁에서 로마가 승리하자 필리포스 2 세 때부터 마케도니아의 통치를 받고

있던 그리스가 로마의 도움을 요청한다. 이에 그리스 문화를 존중하던 로마가 마케도니아를 크게 무찌름으로써 마케도니아가 로마의 속국이 되고 만다. 이때가 B.C. 197 년이다.

<마케도니아 전쟁> : 그리스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마케도니아를 응징하고 싶어 시리아의 셀루커스 왕조에게 도움을 청한다. 이때 2 차 포에니 전쟁에서 패배한 한니발이 셀루커스로 망명해 있었고 최고조에 달한 때라 세루쿠스는 승리를 확신했다. 하지만 마케도니아는 이미 로마의 속국이었으므로 이는 로마에 대한 도전이었다. 하지만 셀루커스는 로마에게 참패를 당하고 자기 나라로 도망하여 한니발을 총사령관으로 내세운다. 그러자 로마도 스키피오를 투입시켜 시리아로 향한다. 3 차 포에니 전쟁에서도 로마가 승리하여 5 천 달란트라는 어마어마한 거액을 전쟁 배상금으로 합의한다. 셀루커스는 국내 모든 성전은 물론, 예루살렘 성전까지 압류하려고 하다가 암살당한다.

<B.C. 31 년 : 악티움 전쟁> : 헬라제국의 종말 : B.C. 333 년은 알렉산더가 이집트를 점령한 해이다. 이집트는 알렉산더가 죽은 후 300 년간 알렉산더의 장수 프톨레미가 왕조를 이루며 통치했다. 그들은 이집트와 유대를 함께 지배했다가 시리아 셀루커스 왕조에게 유대 통치권을 빼앗긴다. 이집트를 통치하던 헬라 제국의 프톨레미 왕조의 마지막 왕이 클레오파트라다. 이집트 여왕인 클레오파트라가 흑인이 아니고 백인인 이유는 그녀의 조상들은 그리스, 마케도니아인이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21 살에 이집트 여왕의 자리에 올랐으며, 그 시대는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25 세 최연소 장군이었던 폼페이우스와 내전을 벌리던 시절이었다. 폼페이우스는 이집트로 도망을 가 망명을 요청하는데, 클레오파트라의 남동생인 어린 왕과 환관들이 폼페이우스를 살해하고 그의 목을 카이사르에게 바친다. 이때 이집트가 왕위 계승권으로 골치를 아파하자, 카이사르는 클레오파트라를 왕위에 앉히고 그녀와 사랑에 빠진다. 이후 로마는 카이사르가 권력을 잡자 오랜 공화정을 끝내고 단일 황제 체제로 바뀐다. 결국 카이사르는 원로원과 공화정 사람들의 권력 싸움에 의해 암살당한다. 이후 카이사르의 유언장이 공개되는데 그는 그의 전재산을 로마 시민들에게 분배하라는 것과, 후계자는 18 세의 옥타비아누스라는

것이였다. 로마 시민들은 로마를 진정으로 사랑한 카이사르를 암살한 원로들과 공화정파들을 성토하게 되고 카이사르의 부하 안토니우스에 의해 모두 죽음을 당한다. 그러나 안토니우스는 옥타비아누스가 후계자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며, 그들의 내분은 14 년간 지속된다. 한편 안토니우스는 카이사르의 연인이었던 클레오파트라와 사랑에 빠진다. 마침내 두 장군은 최후의 결전을 벌이는데 그것이 악티움 해전이다. B.C. 31 년 9 월 2 일 엄청난 로마 군인들이 서로 적이 되어 싸운다. 클레오파트라 (그녀에게는 카이사르의 아들 한명과 안토니우스와의 쌍둥이 자녀와 두살배기 어린아이가 있었음) 도 안토니우스를 돕기 위해 해전에 군대를 이끌고 참가하지만 전쟁 도중에 퇴각을 한다. 이에 안토니우스도 군사들을 버리고 그녀를 따라 지금의 리비아로 도망을 친다. 이때 유대의 분봉왕 헤롯은 카이사르와 폼페이우스 전쟁때도 그러했던 것처럼, 양쪽 모두에게 금은 보화 상자를 보내어 보험에 들었다가 전세가 기울어지자 옥타비아누스에게 줄을 섰다. 그는 정치적 욕심이 크고 간교한 정치인이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유대왕 자리를 지킨 헤롯에게 동방박사라는 자들이 ‘유대왕이 예루살렘에 태어났다’고 하니, 갓 태어난 예수를 가만히 두겠는가. 안토니우스는 클레오파트라가 죽었다는 거짓 유언비에 속아 스스로 자결하고 그 뒤를 이어 클레오파트라 마저 자결함으로써, 헬라제국은 종말을 고한다.